

번역수업에서 번역과제물 감수활동을 통한 다면평가 제안

강 경 이
(이화여대)

1. 서론

번역 교육은 교사의 일방적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의 반복훈련을 통한 내면화, 자동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먼저 실습을 하고 이에 대해 상호토론과 후속 평가를 진행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성초림 외 2001). 그러다 보니 실습 과제물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방식이 수업의 질과 만족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김한식(2008)에서도 번역을 가르치는 교강사들이 학습자들의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함에 있어서 방법론 측면의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최근 사회구성주의 기반의 학습자 중심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번역 수업에서도 상호작용을 지향하는 더욱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수단과 프로세스를 개발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키랄리(Kiraly 2000)는 통번역 수업

에서 교사가 실제 맥락에 기반한 학습자 간 협력 학습을 유도할 것을 제안하면서 학습자들이 헤매지 않도록 “인지적 발판(scaffolding)”을 제공하거나 토론 및 상호작용을 촉진, 조절하는 선에서 역할을 재정립하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번역 과제를 평가에 있어서도 교사 한 사람의 시각만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평가의 주체를 다각화하여 교사에서 학생으로의 “권한이양(empowerment)”을 실천함으로써 역동적, 쌍방향적 수행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과제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학 분야에서는 교사와 동료 피드백 중 어떤 방식이 더욱 수용도가 높은지를 비교하거나 각각의 피드백이 결과물 산출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선행연구들이 많이 있다. 최근 통번역학계에서도 자가평가나 상호 비평 등 주체별 평가의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이상원 2008, 김혜영 2009, 신지선 2007).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의 원칙에 따라 교사, 동료, 자가평가 세 가지를 병행하는 다면평가를 전제로 한다. 실제 수업에서 번역과제물에 대한 평가주체의 다각화를 실천해 보고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과 만족도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한층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단면적인 피드백 제공 그룹과 다면적 피드백 제공 그룹으로 나누어 장기적으로 비교 관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업에 차별을 두어 운영하기 힘든 관계로 한 한기에 걸쳐 다면평가 방식을 실행한 다음 후속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즉, 다면적 평가를 받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효용가치를 타진하고자 한다. 더불어 감수 작업을 평가방식의 주요 일환으로 채택함으로써 번역수업에서 과제물에 대한 자가 감수 및 제삼자 감수의 필요성을 논해볼 것이다. 여기서 감수활동을 실시한 주된 목적은 학생들에게 감수 경험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으며, 수업 참여도 및 상호작용 제고, 구두평가의 단점 보완 등의 효과도 기대하였다. 이 같은 평가방식으로서의 감수활동이 번역자 본인과 평가자에 지니는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여 수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다면평가의 정의

다면평가(multisource assessment)란 복수의 사람, 즉 상사, 부하, 동료, 본인, 고객 등 다양한 평가자에 의해 다양한 수준과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한다(이승계 2005: 299). 즉, 다면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수자에 의한 평가이면서 한 사람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아우르는 의미이다. 이는 경영, 심리학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으로 평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뜻을 담아 ‘360도 피드백’이라고도 불린다.

이승계(2005)에 따르면 이러한 다면평가는 다수인에 의한 다양한 위치와 각도에서의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납득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평가주체가 다양하므로 각각의 평가가 가지는 장단점이 상호 보완되고 시너지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피평가자의 성과를 하나의 관점에서만 보면 부정확하고 주관적일 수 있지만 다면평가를 실시하면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풍부한 정보를 모을 수 있어 평가자 개인의 편파성이 줄어들고 피평가자의 수용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이승계 2005, 김정진 외 2008).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본고는 다면평가 방식을 번역교과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사평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상사, 부하, 동료, 본인, 고객 등 다양한 평가 주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기존의 다면평가 방식이라면, 번역수업에서는 이를 학습자 번역 수행물 평가 용도로 대체하고, 교사, 동료, 의뢰인, 독자, 전문가 등을 평가주체로 상정하여 재설계해 볼 수 있다. 또한 번역물을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므로 하나의 대상을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의미에서의 다면평가 요건에도 부합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번역수업에서의 ‘다면평가’를 ‘수업 중 학습자의 번역 수행물에 대해 교사, 동료, 학습자 본인 등 다양한 주체가 정해진 세부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재정의하고자 한다. 전문가, 의뢰인, 독자평가도 별도로 실시하면 더욱 이상적이겠으나 시공간적으로 제한적인 교실환경임을 감안하여 동료와 교사가 일부 역할을 병행하는 것에 만족하기로 한다. 한 가

지 분명히 해 둘 점은 여기서 말하는 ‘평가’란 학기 말에 실시하는 총괄평가의 개념이 아니라 매주 학습자의 과제 수행물에 대해 양적, 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형성평가’적 개념이다. 또한 과제를 평가 시에는 단순 오류 찾기와 교정에 그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동기 유발적 코멘트를 병행하는 것을 지향한다. 다음으로는 본고에서 평가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감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감수의 개념과 번역수업에서의 필요성

감수(revision)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라함(Graham 1983)은 “제출된 자료에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사용된 용어를 업그레이드하고, 불분명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며, 필요한 부분의 효과를 더 강화하여 독자들의 정서에 보다 더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듀리에(Durieux 1998)는 “번역이 잘 되었는지 살피고 생략 혹은 잘못된 부분, 오역한 부분 등을 바로잡기 위해 행해지는 보완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했다(이계연 2002에서 재인용). 이처럼 번역텍스트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품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일반적으로 ‘감수’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수의 정의와 기준이 학자마다 제 각각이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혼선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이향(2006)은 기존의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정의들을 귀납, 정리하여 “번역물 감수는 1)번역물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번역텍스트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2) 번역문 전체를 3) 원문과 대조하면서 검토, 수정하는 행위”라는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였다. 이에 적극 공감하는바 본고에서는 상술한 정의를 응용하여 “학습자가 일차적으로 제출한 번역텍스트의 품질을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하여 번역문 전체를 원문과 대조하면서 검토, 수정하는 행위”라고 교육적 차원의 ‘감수’를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감수활동을 번역수업에서 번역물 평가작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첫째, 감수능력을 키우는 것은 번역능력 향상 훈련의 연장선이다. 감수는 번역물의 품질을 관리,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실제로 번역사들은 현업에서 편집자, 의뢰자의 조언에 따라 이미 납품한 번역물에 대해서 또 다시 교정을 봐

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며, 타인의 번역물에 대한 감수 의뢰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캠벨(Campbell 1998)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번역물을 수정하여 질적으로 개선하고 번역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능력을 번역의 하위 능력으로 꼽았다(이향에서 재인용 2006:140). 하지만 한센(Hansen 2008)의 실험에서도 밝혀졌듯이 번역능력과 감수능력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는 TAP 실험을 통해 번역능력과 경력이 감수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감수에 필요한 추가능력으로는 화용론적, 언어적, 문체적 현상과 오류를 파악하는 집중력과 자신의 번역이나 남의 번역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공정성, 설명능력, 토론능력 등이 있다. 이러한 제반 능력은 따로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 번역감수 교육을 통해 더욱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다(Hansen 2008). 이계연(2002) 역시 전문 번역사들이 번역 수행 시 재정상의 문제, 자원의 한정성, 촉박한 번역물 제출기한 등의 이유로 스스로 감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감수활동도 번역교육에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번역수업에서 본인의 번역물과 타인의 번역물에 대한 감수작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면 감수자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층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눈으로 번역물을 읽고 수정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감수작업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제고할 수 있다. 스킨(Schon 1987)에 따르면 번역은 ‘비정형화된 지식 영역(ill-structured knowledge domain)’에 속하므로 일관된 전략 적용이 쉽지 않다. 즉, 번역 발주자의 기대사항, 번역사의 지식수준, 번역환경 등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Kiraly 2000에서 재인용). 이처럼 번역에서는 공식(公式)화된 지식을 일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전략을 가르치기보다 전략을 창출, 사용하는 법을 조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는 물론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수업 전후로 자가감수와 동료감수를 실시하면 감수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고민하고 선택한 사항들을 설명하고 수정사유를 정당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 코멘트 일변도의 정적이고 수동적인 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습자들을 상호적, 다성적 소통에 기반한 번역 관련 지식 구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셋째, 현장 구두평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각자 서면으로 작성한 감수본을 사전에 공유하면 수업 중에 토론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구두피드백의 한계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 중 구두평가로 끝나면 논의나 피드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반추해보거나 이를 번역 수정에 반영하고자 할 때 서면화된 감수본이 있으면 수시로 참고가 가능하다. 또한 시간 제약 등으로 수업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감수자의 조언을 별도로 확인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전제로 감수본을 활용한 과제물 다면평가 모델을 한중과 BA번역수업에 활용해보았다.

3. 감수작업을 통한 다면평가 모델 활용사례

본 연구는 2011년 1학기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중과 1학기 ‘전문번역 BA’ 과목 수강자 6명,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통역번역학과 한중과 1학기 ‘번역프랙티컬(BA, AB)’ 과목 수강자 12명을 대상으로 1학기 동안 실시되었다. 먼저 본 강의 운영에 대한 기본 사항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학기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한 학기 동안 진행될 평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침, 원칙, 샘플 등을 공유하였으며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평가의 원칙이나 중요성, 방식에 대해서는 학기 초에만 언급하면 잊혀 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학생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했다.
2. 번역과제는 매주 A4지 두세 장 분량으로 할당하였으며, 일반 신문기사, 소논문, 매뉴얼, 출판서적, 공고문, 소책자, 규정, 음식 조리법 등 현업에서 의뢰 빈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장르 위주로 구성하였다.
3. 수업시간 제약 상 모든 학생이 하나의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역하지 않고 원문을 두세 부분으로 나누어주고 서너 명씩 같은 부분을 번역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맡은 부분을 번역하여 제출한 후 본인이 번역하지 않은 부분을 번역한 학생들의 과제물에 대해서 감수를

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 지침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물 다면평가 모델’을 설계하여 실시해보았다. 즉, 자가평가, 동료평가, 교수평가 세 가지 평가들을 단계별로 적용하되 감수본을 활용해 과제물에 대한 다각적이고 세부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3.1 자가평가

자가평가는 학습자들이 번역 텍스트를 단순히 수업을 위해 제출하는 과제로 평가절하하지 않고 과정 자체에 공을 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전문번역가로 발전하려면 자신의 번역물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반추하여 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김혜영(2004)은 ‘번역일지’의 활용을 제안하는데, 학습자들이 일지 작성을 통해 번역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해결책을 글로 적음으로써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학습자의 작업분석과정이 일지에 드러나므로 교사가 번역결과는 물론 번역과정까지도 관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피드백 제공이 가능하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 양방향 교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지선(2008)은 학생들이 각자의 통번역 연습과정과 학습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장단점, 개선안 등을 정리하는 ‘스터디 저널’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실제 수업 적용 및 설문조사 실시 결과, 자가평가의 일환인 ‘스터디 저널’은 암기가 필요한 주요 사항과 주제지식 조사 내용을 정리,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널을 기록하며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신지선 2008: 46).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번역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느낌을 기록하는 ‘번역일지’와 수업 후 1차 번역본을 재감수하는 ‘수정차트’를 자가평가의 수단으로 활용해보았다. 본 수업에서 자가평가는 대체적으로 수업 선행 단계와 후행 단계에 실시되며, 수업 중 상호교류 과정에서도 번역자에게 토론과 발언, 해명의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진다. 구체적인 진행방식을 설명하자면 우선 한 주 전에 번역 과제 텍스트를 번역 의뢰사항과 함께 미리 배포하였다. 학습자는

할당된 부분에 대한 번역본과 [그림1]과 같은 번역일지(번역 시 부딪혔던 난점, 번역하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 점, 번역과정에서 참고한 번역 출처, 이번 번역에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표현들, 향후 추가조사 및 보완이 필요한 미해결 과제들 포함)를 동시에 작성하여 메일 혹은 커뮤니티 상으로 제출한다. 번역 일지를 쓰게 한 이유는 작성 과정에서 본인의 번역작업에 대한 1차 진단 및 평가가 가능하고, 수업 시간에 논의할 내용과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림1) 번역일지 작성 사례

번역 시 부딪혔던 난점	◦展板、展商、展馆、展厅、展品、展场、布展、预展등 展이 들어간 단어들 많이 나와서 많이 헷갈렸고 어떻게 한국어로 풀어야 할지도 난감했다. 展位는 전시부스로 알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할까. 展馆하고 场馆, 여기에展馆이 한꺼번에 등장하는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번역할 때 이런 용어 선택이 좀 힘들었다.
번역하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 점	◦전시회, 박람회 장소를 기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전람회장 내부에 마련된 시설 소개 번역 부분과 图录부분에서 계속 막혔다. 박람회를 자주 다녀봤다면 감이라도 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번역 과정에서 참고한 정보 출처	◦박람회 관련사이트 고양시꽃박람회 http://www.flower.or.kr/exhibition/exhibition050_2009.html ◦2011 제4회 서울창업산업박람회 http://www.vesexpo.co.kr/expo/?menuid=21
이번 번역에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표현들	◦ CCTV(폐쇄회로) 闭路电视 ◦ 불연소재 (내연재) 防火材料 ◦ ~가 책임을 진다. 责任由~自负/ 费用由~自行承担/ 所达成的损失由~自负
향후 추가조사 및 보완이 필요한 미해결 과제들	◦ 基本款式에 해당하는 컴퓨터파일 양식이 있는지, 그냥 기본프레임 정도로 번역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다. ◦ 明线이 옥외가선 말고 다른 한국어로 뭐가 있을까. ◦ 增加服务项目表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수업이 끝나면 학습자들은 1차 번역 시 난관에 부딪혀 미해결로 남았던 문제점들이나 교사, 동료의 평가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위주로 본인의 번역본을 재차 점검하여 [그림2]의 수정차트(ST원문, 1차 TT, 2차 TT, 수정 이유 및 근거)를 작성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복수 주체로부터의 평가와 상호 토론을 거치고 난 후이므로 한결 거시적이고 확신 있는 해결 열쇠를 가지고 본인의 번역을 돌아켜보면서 재평가 할 수 있다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림2) 수정차트 양식

ST	1차 TT	2차 TT	이유
并拥有修改、解释本细则的权利。	아울러 본 세칙을 수정하고 세칙에 대해 설명할 권리를 가집니다.	아울러 본 세칙을 수정하고 세칙에 대해 해석할 권리를 가집니다.	'해명'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 번역하면서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종류의 텍스트에 어떤 단어가 적절할지 몰라 고민했으나 결국에 부적절한 단어 선택, 해석이라고 수정함.
展商如有不同意见, 应在接到展位确认单的七日内, 向本执行委员会陈述要求重新调整的理由。	부스 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스배정 확인서를 받은 후 7일 내로 집행위에 재평가를 전하는 이유를 알리 주시기 바랍니다.	부스 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스배정 확인서를 받은 후 7일 내로 집행위에 재평가를 요청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평가를 원하는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너무 구어적이다. 세칙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수정.
展商的展位一经确定, 执委会将为展商提供所有相关表格及展商手册。	참가업체가 부스가 확정되면 제반 서류 및 참가업체 수첩을 제공합니다.	부스가 확정되면 참가업체에 제반 서류 및 안내책자를 제공합니다.	일단 '수첩'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 여권이라고 생각했지만 편이 편이 없었다. 번역하면서 별첨덱스트를 꼼꼼하게 찾아 봤다면 '안내책자'라는 단어쯤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1차 TT에 '참가업체'가 두 번이나 쓰여서 어순을 조금 수정함.
任何没有按付款的展商视为违约, 展商所预订的展位不予保留。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며 부스 예약이 취소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부스 예약이 취소됩니다.	'업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다'라는 표현의 호응이 어색하다.
如本执行委员会在展商缴付展位费后, 根据布展需要通知展商调整展位的, 将遵照多退少补的原则办理。	참가업체가 부스비를 납부한 이후 박람회장의 구조적 문제로 부스 위치를 재배정해야 할 경우, 환불되지 않는 가액은 환불해드리고 모자랄 경우 지원해드립니다.	참가업체가 부스비를 납부한 이후 박람회장의 구조적 문제로 부스 위치를 재배정해야 할 경우, 환불 시 호가 납부해야 하고 일여 시 환불합니다.	승환소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역이다. 도리어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몰랐던 것도 오역에 일조한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별첨덱스트를 찾아보는 것이 최선인 듯하다. 아니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마지막으로 학기 말에는 수정 차트에 대한 교사의 2차 서면 피드백을 참고하고, 본인의 번역본에 대해 시간차와 거리를 두어 재검토하여 완성도를 높인 후 포트폴리오를 제출한다. 이때 포트폴리오는 한 학기 동안 다룬 모든 텍스트에 대해 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1차 번역본과 최종 번역본을 함께 묶어 제작하도록 하였다. 이는 시간적 거리를 두고 본인의 번역을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시 한 번 평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3.2 동료평가

동료평가를 실시하면 교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때보다 피드백 정보량이 많아지고 학생들이 직접 감수와 평가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고력과 분석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동료평가를 통해 교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다. 물론 학생들이 평가를 단순히 오역 찾기 작업으로만 잘못 인식하거나 평가 자체가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논조로 흐를 수 있다는 문제점도 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수업 중간 중간 피드백 방법에 대한 주기적 환기,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 스킬 제안을 통해 충분한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료평가의 교육적 효용성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동료평가는 번역결과물에 대한 전체 피드백 양을 늘릴

수 있으며, 학습의 공동체 의식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감수자와 독자의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번역결과물을 바라볼 기회가 생긴다는 점, 동료의 번역수행물을 비판적으로 읽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평가를 하면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스킬과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한편 피평가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여러 독자로부터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번역 결과물에 독자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를 배려하는 글쓰기를 독려할 수 있다는 점, 피드백에 대한 응답을 통해 자신의 의사결정 전략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있다(이상원 2008, 김민정 2008, 박소연 2007).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다면평가의 주요 축으로서 동료평가를 적극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수업 선행 단계에서 동료의 번역물에 대한 감수본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구두 토론을 하도록 하는 식이었다. 먼저 학습자들은 각자 다른 동료 1인의 번역본을 지정하여 감수하고 수업 전에 이를 공유했다. 감수 방식 및 원칙에 대해서는 학기 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고, 학기 중에도 수시로 상기시켰다. 평가의 일관성을 위해 구체적인 감수지침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을 전달하였다.

1. 기본적으로 이항(2006)이 제시한 네 가지 감수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코멘트 작성 시 어떤 항목에 속하는 내용인지를 먼저 명기할 것

<번역물 감수 기준>

- 전달(transfer): 번역문을 원문텍스트와 대조하여 원문의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정확히 전달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 언어규범(language norm): 번역텍스트가 도착어의 언어 규범을 존중하였는가 여부 평가(문법, 철자, 관용어 준수 여부)→ 주로 단어나 문장 차원에서 평가
- 가독성(readability): 텍스트 파원에서 논리적 전개와 표현력 평가
- 기능적 적합성(functional adaptation): 번역텍스트의 용도, 독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문체, 서식,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텍스트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번역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이항, 2006)

2. 감수본 작성 시 정해진 표시법에 따를 것 (예: 좋은 표현 _____ / 수정

필요(도착어 표현 상의 문제) _____ / 오역(전달 상의 문제) _____)

- 가독성과 기능적 적합성 평가는 전체 텍스트 차원의 평가이므로 마지막에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코멘트를 1-2줄로 요약해서 적을 것
- 번역자의 스타일이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오역이나 언어규범 오류 등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과 감수자가 참고나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을 구분할 것

본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상기 원칙을 엄두에 두고 동료평가를 위한 감수본[그림3]을 작성하되 감수 시 ‘명시/암시적 피드백, 긍정/부정적 피드백, 의미/형식 피드백’¹⁾을 골고루 활용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해당 번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결국 번역 당사자에게 있음을 주지시켰다.

(그림 3) 동료평가 사례

12. 기타관련 서비스

- 전시품 운송: 본집행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문운송회사는 전시업체의 전시품 운송, 보관 및 세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해당 전시업체에서 부담합니다.
- 숙식절대: 본집행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시관 인근호텔을 추천하며** 비용은 전시업체가 부담합니다.
- 부스의 정결유지: 전람회장 내 공동사용 공간은 본집행위원회에서 **날마다**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전시관시설: 전람회장에는 정보센터, 카페, 휴식공간, 귀빈휴게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 비즈니스서비스: 관 내에 마련된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전람회장 안에 위치한 비즈니스센터에서는 팩스 복사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서비스: 본집행위원회는 전시업체에 번역 및 **일자리 알선**과 같은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회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13. 박람회도록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시업체 정보와 일부 전시작품 사진을 실은 화려한 색감의 도록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본집행위원회가 도록의 내용과 편집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집니다. 부스마다 도록의 일부 페이지가 할당되며 모두 부스에게 도록을 증명합니다.

- 전시업체에서 제공한 전시품사진이 도록 등록용지에 열거된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해당사진은 **도록에 실리지 않으며** 해당 전시업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가독성] **실제 잘 못어 번역해서 애매하게 잘 읽힌다.**
 [기능적 적합성] **전시에 관한 용어는 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용어가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어등을 일관적으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느낌이 들었다.**

메모 [-1]: [전달과다] '숙박절대'가 나올 듯, 2011-06-20 AM 7:59:00 메모 포함

메모 [-2]: [전달 불충분] 供養券의 種類에 대한 내용이 빠진 듯. →인근호텔을 추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모 [-3]: [전달 불충분] '安辨人員'에 대한 의미를 보충해주면 좋을 듯. →본집행위원회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전람회장 내 공동사용 공간의 정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모 [-4]: [전달 오류] 집행위가 전시업체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는 느낌으로 읽힌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력지원'의 의미인 듯. →번역 및 인력지원과 같은 유훈선 미스들...

1) 이은자(2009)에 따르면 의미 피드백은 글의 주제나 논리와 같이 내재적 의미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형식 피드백은 문법적인 오류나 어휘 선택과 같이 글의 표면적인 형식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명시적 피드백은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정보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말하며, 암시적 피드백은 질문의 방식이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학생 스스로 피드백 의미를 터득하게 하는 방법을 뜻한다. 부정적 피드백은 일정한 평가 기준에 못 미치는 사항을 지적하는 비평 중심의 피드백이고 긍정적 피드백은 칭찬과 격려 중심의 피드백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동료의 번역물을 감수한 평가자는 수업시간에 지정 번역본에 대한 총체적 구두 평가를 진행하고 특정 논의사항에 대한 토론을 주도하게 된다. 서면으로 작성한 감수본에 대해 구두 토론을 하는 것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서면 상의 표현에 존재하는 오해의 소지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3.3. 교사평가

사회구성주의 기반 수업이 보편화되면서 교사의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지만 이는 일방적 지식 전달자의 역할에서 탈피하자는 것이지 교사의 입지나 권한이 대폭 축소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수업의 설계와 진행에 있어서 교사의 조언, 안내, 조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번역에 있어서는 실무를 병행하거나 실무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하우 전수, 간접 경험 제시 등 교사의 목소리로 전달되어야 할 것들이 존재한다. 김민정(2008: 10)은 글쓰기 교육에서 교사가 제공한 피드백이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습자들이 교사와 동료 피드백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단순 선택 상황의 경우 교사 피드백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번역 역시 글쓰기의 일환임을 감안할 때 학습자들의 번역능력 향상에도 교사의 피드백과 조언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은자(2009)는 글쓰기 수업에서 교사 피드백이 교육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수정본 제출이 반드시 후속되어야 하고, 피드백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재피드백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교사평가는 수업 선행, 수업 중, 수업 후행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구체적인 교사평가 방식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제출한 번역본을 사전에 검토하며 각자에게 배포할 감수본(그림4)을 작성하였다. 이때는 최대한 번역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교사의 선택을 강요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고 명백한 오류나 부적절한 전략을 채택한 부분, 번역일지를 통해 파악된 미해결 과제 위주로 방향 제시를 한다. 이는 번역자가 후속 검토 및 자가감수를 진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사평가도 동료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피드백 방식을 골고루 적용하되 지나치게 정성적, 기술적 평가로 편중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정량적 평가를 추가하였다. 즉, 매 과제물에 대해 상술했던 네 가지 감수 기준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표기하였다. 또한 과정 중심의 평가를 위해 1차 번역본뿐만 아니라 2차 수정차트 및 마지막에 제출되는 포트폴리오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림4) 교사평가 사례

7. 전시품 운송: 본집행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문운송회사는 전시업체의 전시품 운송, 보관 및 세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해당 전시업체에서 부담합니다.

8. 속식절대: 본집행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시관 인근호텔을 추천하며, 비용은 전시업체가 부담합니다.

9. 부스의 청결유지: 전람회장 내 공동사용 공간은 본집행위원회에서 날마다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 전시관시설: 전람회장에는 정보센터, 카페, 휴식공간, 귀빈휴게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11. 비즈니스서비스: 관 내에 마련된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전람회장 안에 위치한 비즈니스센터에서는 팩스, 복사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서비스: 본집행위원회는 전시업체에 번역 및 일자리 알선과 같은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회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13. 박람회도록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시업체 정보와 일부 전시작품 사진을 실은 화려한 색깔의 도록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본집행위원회가 도록의 내용과 편집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집니다. 부스마다 도록의 일부 페이지가 할당되며, 모두 부스에(계) 도록을 출정합니다.

2. 전시업체에서 제공한 전시품사진이 도록 등록용기에 걸려된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해당사진은 도록에 실리지 않으며 해당 전시업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전달문 언어규범 75 간독성용 기술적 적합성 75

메모 [kky5]: →가

메모 [kky6]: [도착어 포함] 합리적인 가격으로 ~추천한다는 조종이 어색하게 느껴짐

메모 [kky7]: [전달]조직원 측에서 별도의 인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듯

메모 [kky8]: [대안]필요 시 통번역 및 전문인력 유료 대행서비스 업체를 안내해 드립니다.

메모 [kky9]: →도록신청서 상에

메모 [kky10]: [도착어]내용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듯 [예]이에 따른 책임은 업체 측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다면평가 방식의 단계와 절차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재정리해볼 수 있다.

(표1)감수본을 활용한 다면평가의 전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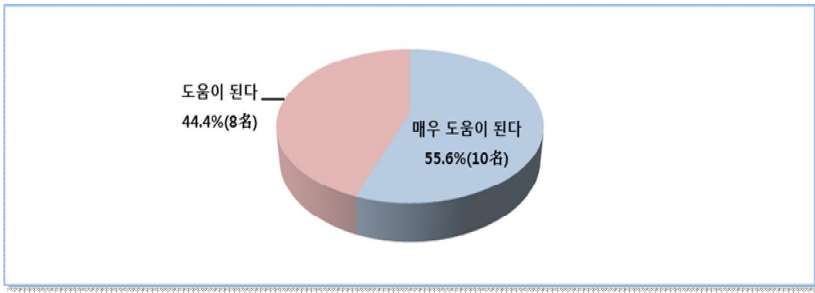
단계	번역 과제물 수행 및 평가 과정	평가 주체	평가에 활용되는 수단 혹은 방식
수업 전 [선행 단계]	과제 텍스트 번역본과 번역일지 작성 제출	자가	일지
	↓ 다른 동료의 번역본에 대한 감수본 작성	동료 / 교사	감수노트 / 감수본
수업 중	↓ 각자의 감수본을 토대로 한 1차 구술 평가 및 상호 토론	동료 / 교사 /	구술형 피드백

[수업 단계]	↓	자가	
수업 후 [후행 단계]	자가 감수 및 수정 차트 작성, 제출 ↓ 교사 2차 평가 ↓	자가 교사	수정 차트 서면형 피드백
학기 말	동료, 교사의 연속적 피드백이 선택적으로 반영되고 본인의 자가 감수를 거친 최종 포트폴리오 제출 ↓ 교사 3차 평가	자가 교사	자체 감수 총평(이메일)

4. 번역과제물 다면평가에 관한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수업 중 활용한 번역과제물 평가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의견을 살펴보기 위해 학기 중반에 간단히 구두 점검을 하고 학기 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크게 과제물 다면평가의 유용성과 장단점에 관한 내용, 품질평가 방식으로서의 감수 작업(동료과제물 감수와 자가 감수)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 동료 및 교사평가를 번역물에 반영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부록1]. 설문은 교사의 기준으로 응답내용을 한정하기보다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개방형 질문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진솔하고 객관적인 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기명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자가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로 구성된 다면평가가 과제물의 질적 향상 및 번역능력 훈련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10명, 55.6%)’ 혹은 ‘도움이 된다(8명, 44.4%)’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이 본인의 번역물에 대해 다각도로 평가 받는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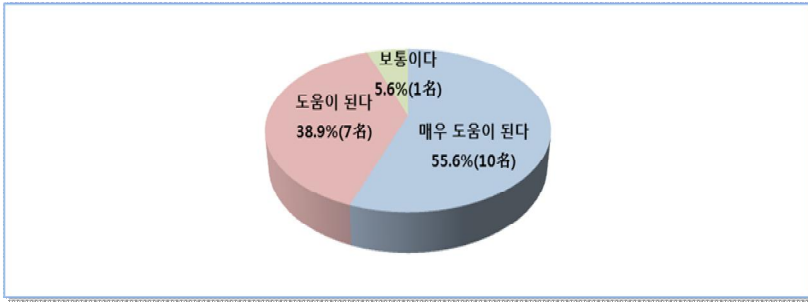
이 같은 다면평가 방식의 장, 단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부분에서도 향후 강의 운영에 참고할 만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각 사항에 대한 학생들의 주요 응답을 옮겨보면 하기 표와 같다. 학생들의 응답을 그대로 옮겨 쓰되 오타가 있거나 너무 길이가 긴 응답은 적절히 수정하고 요약하여 표현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장점>
1. “동료평가 후 교사평가까지 두 번의 감수를 거치게 되면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나, 잘못 번역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좋다.”
2.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던 문제점들을 지적해주는 다양한 조언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동료평가와 교사평가의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서 더 나은 표현을 찾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 같다.”
3. “다양한 대안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고, 이 과정에서 정답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마지막 교사의 평가로 마무리되는 것은 권위가 있고 대부분 학생들보다 뛰어난 답이 제시되기 때문에 좋다.”
4. “자가평가에서 놓쳤던 부분을 동료가 짚어줄 수 있고, 동료 평가에서 문장은 이상하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부분을 교사 평가에서 보완할 수 있다.”
5. “한 문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미해결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함께 연구할 수 있어서 좋다.”
6. “자칫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자가평가에 동료평가와 교사평가가 더해진다면 플러스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 교사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
<단점>
1. “평가 시 오역인지 언어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어디까

<p>지 개입해야 할지 기준을 정하기 힘들다.”</p> <p>2. “제한된 수업 시간에 소화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p> <p>3.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 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듯 하다.”</p> <p>4. “본인이 번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논의할 때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p> <p>5. “교사평가를 정답으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p> <p>6. “동료평가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p>
<p><개선사항></p>
<p>1. “단계를 압축할 수 있을 것 같다. 동료 평가를 각자 수업 전에 소화한 후 수업 시간에는 교사 평가 위주로 핵심 부분 중심의 토론이 진행된다면 여유가 좀 생길 거 같다.”</p> <p>2. “번역자와 감수자가 제시한 번역이 다를 경우, 그 출처나 작성 이유 등을 서로 토론하면서 더 활발한 양자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겠다.”</p> <p>3. “교사가 긴장감 있게 수업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p> <p>4. “동료들이 어떤 것이 전달 오류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확립했으면 한다. 원문에 없는 추가 설명을 하거나 구조를 바꾸어 다르게 표현 한 경우를 모두 오역이라고 평가 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오역 평가 외에도 정확한 감수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으면 한다.”</p> <p>5. “동료의 직설적인 피드백으로 인해 민감한 수업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에 임하는 마인드를 수립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서로 발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사가 지속적으로 다면평가의 취지나 효과에 대해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p> <p>6. “자가평가는 형식적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평가 대안이 고안되었으면 한다.”</p>

이상을 정리하면 다면평가의 장점은 1)다양한 의견과 조언 확보 2)평가의 설득력과 객관성 제고 3)미해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대안 모색 가능 4) 각 주체 별 평가에 따른 상호보완 효과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1)평가자의 주관성 개입 소지 2)시간적 부담 3)동료 평가 품질의 비균질성 4)교사평가에 대한 맹신 가능성 등이 언급되었다. 이에 따른 향후 개선점으로는 ‘절차의 간소화’, ‘번역자와 감수자 간 의사소통 확대’, ‘긴장감 있는 수업 전개’, ‘오류 판단 기준 및 감수의 개념, 다면평가의 취지에 대한 정확한 숙지 필요’ 등이 제기되었다.

그 다음으로 품질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감수활동에 대해서는 동료 과제물 감수와 ‘번역일지’, ‘수정차트’를 이용한 자가 감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먼저 동료 평가로서의 감수작업이 실질적인 번역훈련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10명, 55.6%)’, ‘도움이 된다(7명, 38.9%)’, ‘보통이다(1명, 5.6%)’ 순으로 응답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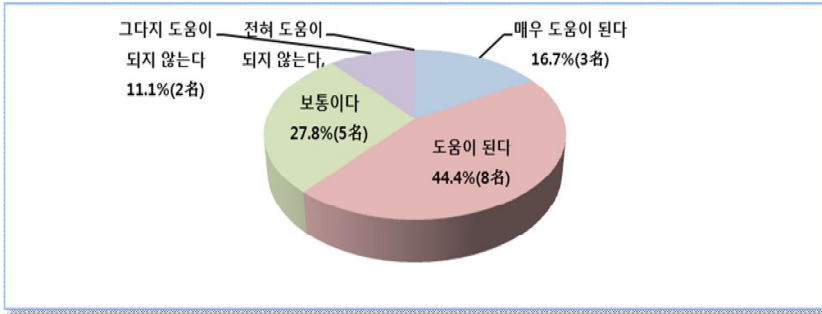


동료 과제물 감수작업이 도움이 되거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는 “타인의 번역을 감수하려면 스스로 원문을 잘 이해하고 비슷한 텍스트를 많이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독해훈련 향상에 도움이 된다”, “다양한 스타일의 번역물을 접해볼 수 있으므로 다양한 표현과 문장 전개 방식을 배울 수 있다”, “잘 된 동료의 번역을 보면서 본인의 번역문에 대한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동료의 문제점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좀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게 된다”, “동료 학생들의 번역물을 평가하기 위해 인터넷 혹은 자료 검색을 많이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많은 텍스트를 접해볼 수 있어서 좋다” 등이 있었다. 반면 “자신이 번역하지 않은 부분을 감수하면 정성이 덜할 수 있다”, “감수를 통해 다른 동료의 번역에 대해 느끼는 바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뚜렷한 실력향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응답도 있었다.

‘번역일지’, ‘수정차트’ 형식의 자가감수가 실질적인 번역훈련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도움이 된다(8명, 44.4%)’, ‘보통이다(5명,

27.8%)’, ‘매우 도움이 된다(3명, 16.7%)’,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2명, 11.1%)’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감수의 유용성에 대한 응답은 아래 정리한 바와 같이 크게 1)‘번역일지’와 ‘수정차트’ 모두 자가평가 수단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2)‘수정차트’는 유용하나 ‘번역일지’는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었다.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지를 쓰면서 번역 과정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어려워했는지, 앞으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다. 수정차트는 반드시 필요하다. 차트를 강제하지 않는 수업의 경우에는 복습이 미흡할 때가 많다.” 2. “번역일지는 번역시 난점이나 취약점을 적으면서 자신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솔직하게 판단할 수 있다. 수정차트는 번역과정을 재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수정차트 작성 과정이 없다면 번역 텍스트에 대해 정확한 복습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다. 번역을 하고 수업시간에 토론과정에서 얻은 정보들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3. “번역일지는 기록을 통해 부족한 점, 향후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면서 공부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다. 수정차트는 스스로 번역한 내용을 재점검하고 오류를 고치는 작업이므로 복습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4.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하지만 수업 종료 후 정리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정차트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은 것 같다. 약간의 강제성이 없다면 복습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 반면 번역일지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항목에

2)	<p>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때도 있고 쓰다 보면 매주 비슷한 내용을 쓰게 된다.”</p> <p>2. “번역일지는 약간 형식적으로 쓰게 되고 작성 후에 다시 보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수정차트는 좀더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어 번역문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p> <p>3. “수업이 아니라 실제 번역 일을 하면서는 번역일지와 수정 차트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많은 과제와 수업으로 인해 작성한 일지와 차트를 다시 챙겨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p>
----	---

마지막으로 과제물에 관한 동료, 교사의 평가들을 후속 수정본에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 1명이 피드백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하려고 한다고 응답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번역 스타일을 기본 골자로 하되 수공이 가는 의견들 위주로 수렴하여 선택적으로 반영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때도 동료 피드백의 경우는 납득이 가는 내용만을 걸러서 적용하는 편이고, 동료보다는 교사의 피드백에 대한 신뢰도와 수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이상의 응답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분석결과 다면평가는 여러 단계에 거쳐 다각적으로 번역물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활용가치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아직 번역물 품질 평가에 대한 기준과 방법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학습자들을 위해 오류 판별 기준과 다면평가의 취지,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공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번역자 고유의 스타일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상호 피드백이 오갈 수 있도록 수업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둘째, 평가 방식으로 활용했던 동료감수와 자가감수 역시 대체적으로 번역 능력 훈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감수의 경우는 평가자마다 실력이 상이하고 감수품질이 균질하지 않아 본인의 번역물 개선에 도움이 되는 동료의 피드백만을 경청하게 될 소지가 있었다. 자가감수에 대해서는 ‘번역일지’와 ‘수정차트’ 모두 유용했다는 응답이 다수인 한편 ‘수정차트’는 유용하지만 ‘번역일지’는 다소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된다는 응답도 더러 있어서 향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가평가’ 틀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습자들은 동료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고 납득이 가는 피드백 위주로 선별하여 수용하는 한편 교사의 피드백은 거의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번역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여전히 교사가 전문가 입장에서 진행하는 평가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번역능력을 훈련하는 학습자들에게는 학습자 간 협동학습과 자기 주도 학습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적절한 방향 제시를 위한 교사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단 교사의 주관적 스타일을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학습자에게 주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감수활동을 통한 다면평가 방식이 번역능력 향상과 번역물 품질 개선에 전반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되지만 수업준비에 드는 시간적 부담과 노력을 완화할 필요성이 일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매주 시행하기보다 한 학기에 몇 번 시도해보는 식으로 빈도수를 조절하거나 여러 단계로 구성된 기존의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실제 번역수업에서 감수활동을 통한 다면평가 모델을 설계 및 운영해보고 그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과제물에 대한 평가주체 다각화와 평가 일환으로서의 ‘감수’활동이 교육적 활용가치가 있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수업 관찰과 설문조사를 병행한 결과, 본고에서 제안한 다면평가 방식은 다양한 주체로부터 풍부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고 직접 감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식 습득과 인지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참여도와 수용도 역시 비교적 높게 관찰되었다. 무엇보다 본인의 번역물을 스스로 점검하고 다듬어나가는 ‘자가평가’와 독자의 시각으로 번역품질을 평가하는 ‘동료평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언하는 ‘교사평가’를 병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참여형 수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평가의 신뢰도와 균질성 확보’, ‘더욱 효율적인 자가평가 틀 개발’, ‘시간적 과부하 해결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 혹은 시행 빈도수 조절’ 등 향후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방식은 번역자 본인, 동료, 교사 모두가 평가의 주체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감수’활동을 동시에 실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하지만 통역번역대학원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 동안만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제한된 수업시간 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해낼 것인지, 시간적 부담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로서 본고의 설문조사 결과 일차적으로 입증되긴 했지만 실험 연구나 더욱 장기적인 관찰 연구를 통해 이러한 평가모델이 교사 전달 중심의 여타 수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더불어 과목에 따라, 학습자 수준에 따라 번역과제물 다면평가 방식의 효용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연구도 흥미로울 것 같다.

참고문헌

- 김민정 (2008) 「교사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이 한국어 다시 쓰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김정진, 박경규(2008) 「다면평가 피드백 수용도 결정요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 『경영학 연구』 37(44).
- 김한식 (2008) 「통번역 강의 진행에 관한 의식조사 - 통번역의 텍스트 및 피드백에 관한 설문을 중심으로」, 『동일어문연구』 제23집: 13-29.
- 김혜영 (2004) 「번역과정 중 문제 해결전략에 대한 분석: TAP의 대체방법으로서의 번역일지」,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6(2): 23-38.
- (2009) 「번역교육에서의 동료 평가 및 동료 감수의 효과」, 『통역과 번역』 11(2): 39-63.
- 박소연 (2007) 「교사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의 비교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성초림, 이상원, 이향, 장현주 (2001) 「번역 교육 현장에서의 번역물 품질 평가」, 『번역학 연구』, 2(2): 37-55.
- 신지선 (2007) 「통역번역 교육에서 스터디 저널(Study Journal)의 효용성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5(1): 33-48.
- 이계연 (2002) 「실제적인 번역교수법,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자가감수와 피드백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제6집: 103-124.
- 이상원 (2008) 「통번역 대학원 BA 번역 강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과정 중심 글쓰기 교육 및 동료 비평의 시사점」,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10(1): 93-107.
- 이승계 (2005) 「다면평가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48: 297-329.
- 이은자 (2009) 「교사 첨삭 피드백의 원리와 방법」, 『작문연구』 제9집: 123-148.
- 이향 (2006) 「번역물 감수의 심층분석을 통한 번역교육 응용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박사학위논문.
- Hansen, Gyde (2008) 'The speck in your brother's eye -the beam in your own. Quality management in translation and revision', Gyde Hansen, Andrew Chesterman and Heidrun Gerzymisch-Arbogast (eds). *Efforts and Models i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Research*. Amsterdam/Philadelphia: J. Benjamins, 255-277.
- Kiraly, Donald C. (2000) *A Social Constructivist Approach to Translator Education: Empowerment from Theory to Practice*, Manchester & Northampton: St. Jerome.

[부록1] 다면평가 활용에 관한 설문

다음은 수업시간에 실시했던 번역과제물 품질 평가 방식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자의 의견을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가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로 구성된 다면평가

(여기서 ‘다면평가’란 수업 중 번역과제 수행물에 대해 교사, 동료, 본인 등 다양한 주체가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1. ‘자가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다면평가가 과제물의 질적 향상 및 번역능력 훈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1) 매우 도움이 된다 2) 도움이 된다
- 3) 보통이다
- 4)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 ‘자가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다면평가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향후 개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2. 품질평가방식으로서의 감수

2-1. 번역 과제 외에 동료 학생들의 번역물들을 평가 및 감수하는 작업이 실질적인 번역 훈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1) 매우 도움이 된다 2) 도움이 된다
- 3) 보통이다
- 4)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2. 위 문항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2-3. ‘번역일지’와 ‘수정차트’를 활용한 자가감수 작업이 실질적인 번역 훈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1) 매우 도움이 된다 2) 도움이 된다
- 3) 보통이다
- 4)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4. 위 문항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3. 과제물에 관한 자가, 동료, 교사의 평가들을 수렴, 반영하는 방식

3-1. 번역과제물에 대해 받은 평가 내용을 후속 수정본에 어떤 식으로 수렴, 반영하는지 간략하게 기술해 주세요. (예를 들면 수정 과정에서 피드백의 내용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지, 변형을 해서 고치는지, 또는 무시하거나 삭제하는지 등 본인의 기존 방식을 회고하여 적어주세요.)

[Abstract]

Suggestions on multisource assessment through editing translation assignments in translation classes

Kang, Kyoungyi

(EWha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 Interpretation)

Multisource assessment refers to a type of evaluation conducted at different levels and on various aspects by multiple persons including supervisors, subordinates, and colleagues. It includes self-assessment as well.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multisource assessment is redefined for classroom environments. To study the educational value of multisource assessment, a multisource assessment model that leverages translation editing is used in a real classroom environment.

Class observations and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multisource assessment is effective as it allows rich feedback from multiple participants, creates huge amount of knowledge and advances cognitive development. Three types of multisource assessment were conducted in translation classes: Student conducts 'self-assessment' to review and edit his/her translation assignment from his/her own perspective; classmates carry out 'peer-assessments' to assess the quality of assignments from readers' perspective; and lecturer conducts 'teacher's assessment' to give comments as a specialist. These three approaches, carried out in parallel, created synergy effect, thereby raising reliability and validity. Furthermore, students were more engaged in classroom discussions, contributing different opinions on given subjects. Some issues remain unsettled, such as 'ensuring reliability and homogeneity of peer reviews', 'developing more effective self-assessment tools', and 'streamlining processes or adjusting assessment frequency to resolve excessive time consumption problem'. Once

these issues are resolved, multisource assessment is expected to present significant educational value.

▶ Key Words: multisource assessment, translation editing assignments, translation class, self-assessment, peer-assessments

강경이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kky1011@hanmail.net

관심분야: 출판번역, 번역교육, 번역사회학, 번역과 이데올로기

논문투고일: 2011년 10월 11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5일